

## ▶ 가족·아동

## 새터민 아동과 남한 아동의 도덕추론과 도덕판단

이 예 영\* (서울대학교 아동학 석사)

이 순 영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본 연구는 새터민 아동의 도덕성발달에 대해 알아보고 남한 아동과 비교해봄으로써 사회적 능력과 관련되는 발달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남한사회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도움수혜자와의 관계, 연령 및 집단(새터민/남한)에 따라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추론 및 의사결정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대인폭력 의도, 연령 및 집단(새터민/남한)에 따라 아동의 대인폭력에 대한 도덕추론 및 도덕판단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으로는 11세부터 19세까지의 초등, 중등, 고등연령의 새터민 아동 82명과 남한 아동 186명을 선정하여, 친사회적 도덕갈등 과제와 대인폭력 도덕갈등 과제가 제시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에서 빈도분석, 반복 측정 변량 분석, 독립표본 t 검증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되었다.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추론수준은 도움수혜자가 가까운 관계일 때가 먼 관계일 때 보다 높았으며, 새터민 아동의 도움수혜자와의 관계에 따른 추론수준의 차이가 남한 아동의 차이보다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모든 연령에서 도움 수혜자가 가까운 관계일 때 친사회적 도덕추론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도움수혜자와의 관계에 따른 수준의 차이는 중등연령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초등연령인 새터민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추론수준이 남한 아동에 비해 낮았다. 둘째, 아동의 친사회적 의사결정은 도움수혜자가 가까운 관계일 때가 먼 관계일 때 보다 많이 나타났고, 초등연령의 경우 중등연령의 친사회적 의사결정보다 많았다. 셋째, 아동의 대인폭력에 대한 도덕추론은 부당한 폭력에 대한 도덕추론 점수가 정당한 폭력에 대한 점수보다 높았다. 초등연령의 대인폭력에 대한 도덕추론이 중고등연령보다 낮았으며, 초등연령의 남한 아동이 새터민 아동보다 대인폭력에 대해 더 높은 추론점수를 보였다. 넷째, 아동의 대인폭력에 대한 도덕판단에서는 부당한 폭력에 대한 도덕판단 점수가 정당한 폭력에 대한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새터민 아동이 남한 아동보다 정당한 폭력에 대해 더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으며, 남한 아동이 새터민 아동보다 부당한 폭력에 대해 더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한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는 새터민 아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교육하여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새터민 아동의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주었을 보다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